

## 아름다운 교회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 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 둘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 둘을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 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사만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같이 하였더라 [개역, 여호수아 4:1~14]

**하** 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에 비유한다면 어떤 가정 같습니까? 결말까지 본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무리 혼을 내고 달래도 안 되어서 아들을 갖다 버린 집안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불쌍해요? 그렇게 버림받은 아들이 불쌍합니까? 그것도 아들이라고 고생고생하면서 키워놓고는 끝내 갖다 버려야 하는 아버지가 불쌍합니까? 그렇게 다 망가져 가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친아들까지 희생시키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도무지 칭찬이라곤 들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한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털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때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시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 한번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정말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 안에 자그마치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합니다. 한 군데 더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궤를 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루게 하신 일’ 여기에도 나오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준행하였더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책 제목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한 일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혹시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을 기회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행한 일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보면 됩니다.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다 준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하다고 말할 때 그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누구와 대조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왕의 권한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그 순종함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온 인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마치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서는 데 선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서고 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지도자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도 넘쳐나고 교회도 넘쳐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설교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설교 시간에 혹은 교회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전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원래 자기 집의 밥이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의 밥이 귀한 줄 알면 복된 일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영해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포항까지 통근하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어느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한 20분쯤 지났는데 '목사님이 언제부터 설교를 하시려고 댄 얘기만 하시는가?'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성경적인 얘기만 해서 재미가 없죠?' 하시는 거예요.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길로 보따리 싸고 토요일마다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일도 돕곤 하였는데 주일날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세련되고 깔끔하고 듣기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설교라기보다는 인성계발이나 도덕교육이면 좋겠다는 설교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전달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도덕, 철학이나 이런 걸 전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백번 정도는 성경말씀을 잘 전하다가 딱 한번 교묘하게 비틀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번이나 정확하게 하고 한번 틀리는 것은 괜찮지요? 그 한번 비틀어 버리는 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끝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다 틀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성경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한번 비뚤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안 믿는 집보다 교회 문패가 붙은 집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성경 퍼 놓고 성경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 정말 잘 안다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으니 이런 분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득세를 하는 겁니다.

이단이 틀린 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도둑이 도둑 흉내를 냅니까? 도둑같이 하고 다닙니까? 진짜 도둑은 절대 도둑같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키워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키운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위대한 인물로 키우신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러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하시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키우셨다는 겁니다.

3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리라' 여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요단강이 썩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목사나 장로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으로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 요단 물이 독에 넘칩니다. 홍수가 나서 독에 넘쳐 흐르는 강둑에 한번 올라서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40년을 지냈고 대부분은 태어나서 강물이라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강물 속으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간이 크겠습니까? 겁이 없겠습니까? 독에 넘쳐 흐르는 저 강물 속으로 그것도 맨몸도 아니고 궤를 멘 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길 때쯤에 그 강물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제일 나중에 나온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강 한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강물에 먼저 들어가서 강 중간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 후에 제사장들이 가장 늦게 나오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궤를 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났으며 모든 백성이 다 건너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백만이 넘는 대군이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수 많은 가축과 수레와 짐승들을 끌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대군이 강을 다 건너갈 동안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백만이 넘는 대군이 건너갈 동안 그 강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버티고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의 어른들이 이래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무엇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어른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오래되었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온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2~45)

42절에는 '집권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끝에 '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권자나 대인들은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믿는 너희들 중에서 소위 집권자나 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집권자나 대인, 말하자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의 어른이 아닙니까? 그 백성의 어른이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동안 강 가운데 케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글썽 얼마 만에 건넜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루 만에 건넜으면 하루 종일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금방 나온 새신자하고 이 교회에 오래도록 계셨던 분 중에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제일 높은 어른, 제일 대접을 받아야 할 어른이 새신자입니다. 어제 아래 등록된 분이 계시면 제일 높은 분입니다. 바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늦게 교회 나온 새신자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그런 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그런 섬기는 분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가대 봉사 잘 하다가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 또 교회의 이런 저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통 언제쯤 손을 놓습니까?

교회의 어른이 되고 중요한 직책에 앉을수록 더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끔 시내 성가대 연합으로 모이는데 가서 보면 머리 허연 분들이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보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아마 찬양 잘 못할 겁니다.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요? 몇 년 하다가 그만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아이들 가르친다면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뚝 박아야지요! 교사 한 해 하고 두 해 하고 그만 두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교회에서 연륜이 높아간다는 것은 이런 일에서 손을 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린 자, 더 약한 자를 섬기는 분량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에서 더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갈 동안에 제사장들은 그 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도 한번 맡겨 놓으면 안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맡겨 놓으면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데 '기분 좀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때려 치우는 이런 일은 정말 철없는 교인이면 몰라도 교회에서 경륜이 좀 쌓였고 어른이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자리 맡았으면 누가 봐도 안심이 될 만큼 굳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간혹 비켜 줬으면 하는 사람이 안 비켜 주고 오래 버티고 있어서 온 성도들이 피곤케 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눈치껏 알아서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비켜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일을 맡았을 때에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언약한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굳건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케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는 요단 물이 갈라진 채로 침범치 않았습디다. 제사장들이 이려고 있을 때에 백성들 속에서도 묘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속히'라는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 40여 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 백성들은 속히 건너야 할 이유가 있었습디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 오고 있었으니까 빨리 건너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속히 건너갈 이유가 없습디다.

강물이 갈라졌는데 지나갈 동안에 다시 강물이 합쳐질까 싶어서 그렇게 빨리 건너가는 겁니까? 어차피 강물이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것은 잊어버리고 건너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속히 건너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저 케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하고 그래서 빨리 건너간 것 아닐까요? 정답이라고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디다마

는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급하게 건너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철철 넘쳐 흐르는 강이 끊어진 것은 감사한데 거기를 건너가면서 백성들은 강물이 끊어지도록 먼저 들어가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뒤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수고를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도자들에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사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기 땅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땅인데 싸워서 그 땅을 얻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서 살도록 하겠습니까’고 했을 때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야단을 좀 쳤지요. 너희 다른 형제는 이 요단을 건너서 저기 있는 수 많은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하는데 너희만 여기에 평안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 형제들이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때에 우리도 건너가서 돕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거기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강을 건너와서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모세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두 지파 반이 강을 먼저 건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고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건너갔는데 전쟁이 7년간이나 계속됩니다. 물론 도중에 이 군사들이 다 건너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남겨 두고 군인들 전원이 다 건너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와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가 건너갔습니다. 군인 중에 절반은 건너가고 절반은 남아 있었으니 그 7년 동안에 아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대가 교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7년 동안 두 지파 반이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와 함께 싸웠습니다.

이때 들어갔던 군사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우리가 땅을 얻었고 우리가 거주할 곳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치러야 하는 형제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을 건너가는 두 지파 반의 군사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돌을 나르는 열 두 사람,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나가서 돌을 나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을 몇 개 날랐죠?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취해서 돌 열 두 개를 운반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열 두 개로 기억하시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스물 네 개입니다. 강 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밖에다 두고 나중에 길가에 가서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강 밖에 있던 돌을 다시 메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섰던 곳에 열 두 개를 또 세웁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을 열심히 나른 이유가 뭐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우리 머릿속에 최후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수양회 갔다 온 뒤에 “애, 재미있었냐?” “재미있었습니다.” “뭐가 재미있었냐?” 하면 늘 엉뚱한 얘기만 해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도망가서 뭐 사먹은 이야기, 잠자다가 실수한 이야기 이런 것만 자꾸 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 목사님에게 뭐 배운 것 없냐?” “아, 예.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우스운 이야

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는데?”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스운 얘기를 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그냥 우스운 얘기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수양회를 다녀오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든 우리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건물은 남아 있지만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친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존경하지 않도록 너무 엄하게 키운 경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강 속에 있는 돌을 메고 나와서 길갈까지 메고 가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또 밖에 있는 돌을 강 한가운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불평불만 한 마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를 돌 때도 입 꼭 다물고 한 마디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오라고 할 때 아무 불평불만 없이 꾸역꾸역 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군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이 순종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죠? 철통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막강한 적군과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아군과 적군을 분간해서 때립니다. 아군은 전혀 때리지 않고 적만 끌라가면서 때리는 우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그 원수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와 달이 중천에 떠서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부분을 읽어가면서 제가 붙인 제목이 ‘위대한 순종 그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평도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한 때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계속 이대로 살았더라면 그게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순종하는 자식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혼하려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이 좋아야 되지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막상 사람을 정해야 되는 때가 되면 이것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남자들은 인물부터 찾고 여자들은 직장이 급선무죠. 신앙은 몇 번으로 밀리든지 늘 밀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내 생각과 내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한 시간이나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것만은 순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한 일주일만 버티어 보십시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목사님이야 그러지마는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이러면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조상들에게 배웠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이 무참하게 깨어져 나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깨어져 나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보세요.

미련 곰탱이 같이 순종 잘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부모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어쨌든 자기 피로 욕심을 다 부려 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국 둘 다 복을 받았습니다. 뭐가 다르니까? 이삭은 참 평온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받고 삽니다. 야곱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복은 복대로 받으면서 평온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정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성을 위해서 강한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나 목사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백성들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강한 가운데 굳게 섰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여호수아 그런 제사장들의 수고를 염두에 두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며 자기들보다 훨씬 강했던 대적을 전부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룬 것 아닙니다.

교회 성장?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이적을 체험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